

개헌안 합의 불발에...

우원식 “발목잡기” 김성태 “靑 하수인”

전날 여야3당 만찬회동서 합의 실패...투표시기 ‘이견’ 여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교섭단체 여야 3당 만찬회동에서 개헌안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상대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설전을 벌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트집과 발목잡기만 할 게 아니라 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한바디 없이 시간을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순바닥도 미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권여당이 노력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정외대가 자문위를 통해서 국민 개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만 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구체적 방향을 잡고, 2월 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할 협상을 (하려고 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우 원내대표가 정외대의 하수인으로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끄떡없어도 못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국민 호헌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의 관계 개헌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헌을 성취해 달라는 강력한 국민 목소리에 귀담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개헌안 마련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 협상과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의 실무적인 소요시간을 감안했을 때 다음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는게 중요하냐”고 맞섰다.

개헌안 협상 방식에 대해서 우 원내대표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개헌안 협상에 임하되, 비교섭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창구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헌법개정 투표일 이 4가지 큰 틀에 교섭단체 합의로 이뤄내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헌정특위에서 합의 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두 사람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개헌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10월말 개헌을 주장했으나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 입장을 고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굳은 표정으로 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형제재단 사무국장(구속)의 영장에 다스의 실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2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조배숙 대표(오른쪽 2번째), 장병완 원내대표(오른쪽 3번째), 김경진 최고위원(왼쪽) 등 당 지도부가 섰다운(shutdown)이 예고된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찾아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공장 폐쇄 특별대책 현장감담회’를 열고 있다.

민주평화당, GM 군산공장 방문

현장 노동자 의견 청취 “문제해결에 총력 약속”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평화당이 최근 폐쇄된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방문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동영 의원, 김경진 최고위원, 박주현 의원 등은 22일 오전 9시30분 군산GM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특별대책 현장 감담회를 열었다. GM노조측에서는 이범로 전 노조위원장, 유성현 사무장, 류일남 지도교문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착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KTX를 타고 익산에서 군산으로 오는데 현대조선소도 떠나고 군산GM공장도 떠나면 군산 시민 다 죽는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군산이 죽을 뻔한 아니라 전북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공장폐쇄 발표가 나온 즉시 고용재난지역선포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다행히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선포했다. 급한대로 최소한의 조치는 한 셈”이라며 “지금까지 논의된 원칙은 첫째 폐쇄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재가동 보장 없는 한국GM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군산GM공장이 폐쇄된다면 그 파급효과, 실업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고 군산시민의 어려움이 막대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사태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온 점, GM이 경영상 불투명한 문제,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관해

온 점은 직무유기라는 점, 앞으로 GM대우 살리기 위해서 밀폐된 독에 불 붙는 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공장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북 지역 의원인 정동영 의원은 “지금은 분노와 규탄의 시간이 아니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군산공장을 살릴 수 있을까 냉철한 가슴과 머리로 대책을 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민주평화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언론 플레이 차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아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이범로 전 노조위원장은 “군산공장에 관심 가져주고 폐쇄 통보 이후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이리저리 참석해준 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노조는 수년전부터 이런 것을 예견하고 GM에 군산공장 정상화, 회생을 위해 노조가 훨씬 더 양보하고 희생해야하나 말해달라, 고민하고 양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다 실이들 앞두고 일반적으로 폐쇄통보를 해서 노조는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노조위원장은 “단순히 군산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경제, 국가적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저런 한국GM 직원이기 전에 군산시민, 전북도민이다. 우리 생존권 터전인 군산공장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끝없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靑 “김영철, 文대통령 만남 가능성...남북관계 논의 기대”

“날짜·장소 미정...25일 만날 듯”

청와대는 22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어떻게 될지

는 모르지만 우선 25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연스러운 기회에 대표단을 만나게 될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단이 내려오기로 한 만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발전, 화해 등을 위한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은 김 부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

표단을 오는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비롯해 수행원 6명 등 총 8명의 규모로 구성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의 의미와 관련해 “지난번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위급에서의 (남북간 대화) 채널이 열렸던 것처럼 그런

고위급 단위의 채널들이 적극적으로 열리고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접견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설득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김여정 특사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을 때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시종일관 북미간에 조속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한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